

포천보육지원센터 영북초교에 開館

전국 최초 초등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10월24일 영북초등학교(교장 민원기)에 포천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최길용 교육장 및 여러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관내 보육교실 설치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초등보육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7학년도 포천지역이 농산어촌 지역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공동투자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어진 포천보육지원센터는 전국최초의 초등보육만을 위한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초등보육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아동

들의 과제지도, 학습지도, 취미활동, TV시청, 간식등을 제공하여 가정에서와 같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초등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실정이라 현직교사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초등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시골학교의 경우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승인 받아도 일정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과 포천지역 보육담당교사들의 보육프로그램을 향한 의지를 모아 포천초등보육지원센터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포천교육청 방과후 담당 황규열 장학사는 "포천초등보육지원센터는



지난 10월24일 개관한 포천초등보육지원센터는 장학자료집 발간, 공동협력프로그램개발, 다양한 교사연수 등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포천지역의 초등보육프로그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학자료집 발간, 공동협력프로그램개발, 다양한 교사연수진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포천지역의 초등보육프로그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수 증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포천 관내 6학년 이하 소규모학교 5개 초등학교는 지난 10월 25일에 금주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를 1년 동안 운영했던 내용을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온 농어촌학교 시범학교로 지정 받은 금주초등학교, 보강초등학교, 축석초등학교와 농산어촌 공동 학교군 구성 시범학교로 지정 받은 관인초등학교, 종리초등학교가 교육공동체가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합동으로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했던 모든 학교들은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하는 가족이 늘어나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의 위기까지 몰렸다.

그러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통학버스를 운행, 각종시설의 현대화, 별빛도서관 운영,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특성화 교육,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등의 다양한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감동을 줬다

고 했다.

그 결과 감소하던 학생수가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났게 되었고, 농촌학교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보고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정책담당 장학관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신성초등학교 전근배 교장을 초빙하여 6학년 이하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초등학교 중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만들기 사업에 성공사례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5개 학교의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받게 되어 2차 년도의 시범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금주초등학교 류인수 연구부장은 "1년 동안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식구보다 더 진한 한울타리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농촌학교도 도시보다 더 좋은 특색 있는 명품학교를 만들면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관내 6학년 이하 소규모학교 5개 초등학교는 지난 10월 25일에 금주초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를 1년 동안 운영했던 내용을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보고회를 가졌다.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㉘

孔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 하며 非禮勿言 하며 非禮勿動 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예에 맞는 것이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동하지 말라 하였다.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사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법에 맞는 것이 아니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은 사육의 싹들을 방지하고 사육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 예라

는 것은 인간의 행동 강령이니 곧 인간의 바른 도리가 된다. 이 내가지는 공자가 그의 제자 안연의 물음에 답한 것으로서, 사육을 극복하여 예에 돌아가는(克己復禮)방법론이다.

양주 승
본지 지문위원/교편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동두천외고 수석합격 김예슬 양



동두천외고 국어고등학교 특별전형에 수석합격 한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예슬(사진)양의 합격소감이다.

김 양은 2007학년도 포천여자중학교 전교 학생회장이며 내신성적은 200점 만점 중 199.19점을 받아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장래희망이 외교관이라는 김 양은 포천시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해 태국과 인도에서 온 청소년들과 홈스테이 등을 통해 영어실력을 다지기도 했다.

김 양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포천여자중학교 모든 선생님님들 물론 1,2,3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루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부하는 비결에 대해 김 양은 "수업시간에 잔이 없다"고 밝히 수업시간에 충실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송우중학교 2007학년도 추계 체육대회

송우중학교(교장 박정수)는 10월 26일 '건강한 송우 건전한 우리'라는 주제로 2007학년도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 대회를 통해 박정수 교장은 "오늘 겨우 두 돌이 되어서는 송우중학교가 아직아장 걷는 발걸음으로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아직은 서투른 걸음이지만 앞으로 당당하고 자신있는 발걸음으로 한걸음씩 내딛는 커다란 송우인으로 자라게 되"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줄타기, 파도타기, 뚝다리밟기, 명랑경기, 모두 다 함께 친선경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칭찬 쿠폰제를 통한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여 칭찬 쿠폰을 이용해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칭찬쿠폰제는 송우중학교 학생들이 모범적이며 칭찬받은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쿠폰을 발행했으며 이



송우중학교는 10월26일 '건강한 송우 건전한 우리'라는 주제로 2007학년도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날 그동안 받은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배가되기도 했다.

이날 체육대회를 준비한 이홍일 체육교사는 "스포츠클럽이 숨쉬는 exciting한 체육대회,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혼연일치한 체육대회, 학교와 지역사회의 주민, 각 기관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칭찬쿠폰제 활용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배가된 체육대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마켓영어

26. <가정방문>: 초 대 (9)

* 오늘 밤 즐거웠습니다. 이만 가 봐야 하겠습니다.
땡스 휘더로블라이브닝, 아이드베러갯고잉
<Thanks for the lovely evening, I'd better get going.>
* 가는 길에, 호텔까지 바라다 드리겠습니다.
아이데이트루 투더호텔 언마이웨이홈
<I'll take you to the hotel on my way home.>
* "마크", 너무 고마워요
오, 하우캐나이 땡큐 "막"?
<Mark, how can I thank you?>
* 전민예요(제 성의 입니디)
노우, 잇스마이프웨어
<No, it's my pleasure.>
* "잭", 언제 떠나요?
웬야유리빙, 잭?
<When are you leaving, Jack?>
* 그럼, 내일 우리 좀 만날까요?
캐누이잇 썸타임투모로우?
<Can we meet sometime tomorrow then?>

명품학교 만들기 ⑩ | 영북종합고등학교

학교공원화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신상호 교장 이영주 교감

영북종합고등학교(교장 신상호)는 1969년11월11일 영북농업고등학교로 인가되어 영북중학교와 병설로 운영되어오다가 학생수 증가에 따라 1981년3월1일부터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 학년에 일반계 보통과 1학급과 전문계 인터네트보처리과 3학급이 설치돼 있다.

영북종합고등학교는 신상호 교장과 이영주 교감의 부임이후 학교 공원화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공부하는 학교로 분위기를 개선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전인적 인간교육에 있으므로 오랜 옛날부터 지·덕·체·에 바탕을 두고 전인으로서의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교육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영북종합고등학교는 자연친화적인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를 공원화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공원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도야할 수 있으며 특히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공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갈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육성에 있어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모두가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공원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영북종합고등학교는 학교 공원화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꽃길 조성하기▶비닐하우스를 통하여 국화 재배하기▶학교부지 텃밭을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하기▶교정에 나무심기 등의 중점과제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점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교정에 꽃길을 조성해 아침마다 물을 주고 가꾸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메마른 학생들에게 나무·꽃·작물을 돌

보고 키우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다양하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활동을 통해 모종에서부터 꽃이 피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찰하고, 다 키운 국화는 지역 주민과 각 기관에 나누어 줌으로써 나눔의 정신도 갖게 한다.

학교 텃밭에 여러 가지 농작물(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등등)을 재배하여 식물의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의 기쁨과 노동을 통한 성취감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북종합고등학교는 이처럼 학교를 공원화하고 정보검색 및 영상학습과 모든 학습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도서실을 리모델링하여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 및 일본어

개 전개하고 있다.

이영주 교감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각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산에서 뽑아내는 산소를 마시며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라며 "영북면과 영증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영북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상호 교장은 "영북종합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학교 공원화조성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이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2학기 수시전형에서 이상화 학생



영북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교실앞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용학습실을 새로 꾸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각 교과시간에 ICT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계 인터네트정보처리과 교육시설로 정보처리1실과 2실, 사무자동화실 등에 첨단 정보화기자재를 설치하여 정보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활동으로 영북종합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응시학생을 위해 저녁급식은 물론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밤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수능교과 교사들이 함께 남아 개인별 지도를 담당하여 수능등급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 자격증반, 가사실에서 재방반 학습 뿐만 아니라 과학실에서 과학실험반과 댄스 동아리 활동, 4H 학생들의 국화반 활동 등 다양한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활발하

이 서울대에 합격하여 수능시험만 잘 치르면 최종 합격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천교육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상호 교장과 이영주 교감의 교육열의가 영북종합고등학교를 의미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학교공원화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의 결과는 서울대 합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이상화 학생은 "도시학교로 진학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 가며 힘들게 공부하고도 헛고생이 된다던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며 고항에 있는 학교에 진학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어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참살이 自然친화 環境교육 체험학습

경기도포천교육청, 초·중·고 학생 환경지킴이 67명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10월 22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환경지킴이 67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센터 외 보광분교 농사체험학습장에서 교육특화 사업인 자연친화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참살이 자연친화 환경교육 체험활동이 되도록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신북면의 포천 재활용센터와 보광분교의 농사체험학습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땅과 무를 직접 수확하는 자연친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재활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생활 쓰레기가 들어와서 재활용되까지의 과정을 보고, 듣고, 분리수거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그리고 보광분교 농사 체험학습장에서 학생들이 땅과 무를 수확하기 위해 땅을 파보고, 만져보기도 했다.

강사로 참여한 왕방초등학교 김순실 교사는 "재활용센터 견학과 농사체험학습으로 학생들에게 환경요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자

연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포천의 환경지킴이들이 참살이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경지킴이 학생들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였어요. 학교에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참살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어요"라고 말했다.

포천교육청 관계자는 "참살이 자연친화 환경교육을 단위학교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10월 22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환경지킴이 67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센터 외 보광분교 농사체험학습장에서 교육특화 사업인 자연친화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